

리버데일 한의원 한의사 : 임 베로니카 3263 Johnson Ave. Bronx, NY 10463 (718) 796-0267/ 3636	맥 한의원 한의사 : 김 글라라 침, 한약으로만성병치료 224E 204St Bronx (718) 563-1209	이 준 승 치 과 Medicaid Accepted 503 S Broadway #250 Yonkers NY 10705 (914) 376-4033
뉴저지 동해수산 EastSeafood Restarant 445 Grand Ave PalisadsPark, NJ07650 Tel 201-461-4447	뉴욕라이프보험 김 여경(헤레나) (203) 629-0266(O) 각종 보험, 투자	리사 휴대폰 국내무제한, 한국5시간 월40\$ (세금포함) (718) 205-1200 Kim
중앙 장의사 하 봉 호 (718) 353-2424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Century 21 Royal 부동산 Sales, Rental Mija (세실리아) Son (914) 310-6990(C)	뉴욕정비(브롱스) 2801 Webster (718) 295-3252
통증 중재의학 이만식 제통전문병원 신경 차단술 요통, 허리 디스크 및 각종통증 (718) 224-1600 43-24220Pl.Bayside, NY 11361	아리랑 여행사 AIRIRANG TRAVEL SERVICE INC. 표 : 김 율 환(Francisco) 영 희(Julie)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22층 1-212-563-3350 1-800-223-6225	김태복 통증 한의원 통증 전문 39 W 32 St Suite 300 맨하탄 (212) 947-8382(B) 뉴저지 (201) 592-5514(H)
Edward D Jamis, Jr 장 의 사 조용하고 주차, 교통편리 베이사이드 노던 209가 (718) 224-2390 (888) 224-6088	정일면(스테판노)지과 코렐비아 지과대학교 졸업 엠파이어스테이트(시립병원 앞) (718) 426-4343, (주자원비) 베이사이드 718-352-3434	HOPE AGENCY INC. 희망 보험사 가계, 빌딩, 주택, 자동차 트럭, 벤, 생명, 교육, 은퇴 (718) 961-5000 김 모세
FirstAmerican Landing 부동산매매에서 모기지 대출까지 주택상가 사업 체) 정영오 루가 201-461-9999 917-232-8890	김진상 3S 교정치과 아동 및 성인 교정 전문 ◎ 뉴욕, 플러싱 : (718) 460-1802 ◎ 북부 NJ : (201) 840-1123 ◎ 중부 NJ : (732) 548-4848 김 진상 (빈센트)	김철 공인 회계사 Young & Jullan, LLC 150-05 노던 (150가) 2F1 (플러싱) (718) 888-1217
컴퓨터 출장수리 감시카메라/인터넷 전화설치/수리 이홍석(사도요한) (201) 336-2522	핑크 미용실 매주 일요일(주일)은 쉽니다. 3135 Grand Concourse (between 204 & 205 St.) Tel. (718) 563-6997	한미 가톨릭 연방 신용조합 월-금 8:00 AM-4:30 PM 일 9:00 AM-2:00 PM (718) 353-7676 144-19 33rd Ave Flushing, NY 11354
센츄럴 헤어살롱 (구 브롱스소망이발관) 남, 여 이발 및 미용 747 센츄럴파크(100번도로) (914) 725-0747	김영관 회계사무소 ● 개인/법인세무보고 면 회사설립 사업허 공증, 번역 종업원상해 (718) 961-4024(2)	광고모집

제1676호

2011, 8, 21

북 부 뉴 욕

성 남요한 한인 가톨릭교회

Korean R.C. Church of St. John Nam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마태오 16, 13-20)

주임 신부 : 남 시몬(해근)

부주임신부 : 이 안드레아(환규)

본당 수녀 : 김 소피아(마리아)

교회 시간표

주일 미사 : 오전 8시, 11시(본미사), 12시 30분(학생미사)

평일 미사 : 매일 오전 9시, 수요일 오후 8시

고백 성사 : 주일 11시 미사 전.후

주일 학교 : 주일 오전 11시

한글 학교 : 주일 오전 10시

예비자교리 : 주일 오전 9시 30분

병자봉성체 : 매월 첫 금요일

유아 영세 : 매월 둘째 토요일(한달전 신청)

3663 White Plains Road Bronx, NY 10467

사무실 : (718) 231-2414

수녀님 : (914) 265-0117

회 장 : (914) 707-3182

Fax : (718) 405-0053



연중 제21주일

ㄹ 입당송

(시편 86(85),1-3)

주님, 귀를 기울이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주님 종을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자
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대영광송>

ㄹ 제1독서 (나는 다윗 집안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메어 주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22,19-23)

주님께서 궁궐의 시종장 세브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19 “나는 너를 내 자리에서 내쫓고, 너를 내 관직에서 끌어내리리라.

20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나는 힐키야의 아들인 나의 종
엘야킴을 불러 21 그에게 너의 관복을 입히고 그에게 너의 띠를
매어 주며 그의 손에 너의 권력을 넘겨주리라. 그러면 그는 예루
살렘 주민들과 유다 집안의 아버지가 되리라.

22 나는 다윗 집안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메어 주리라,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23 나는 그를 말뚝처럼 단단한 곳에 박으리라, 그는 자기 집안에
영광의 왕좌가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화답송 (시편 138(137),1-2,27ㄷ과 3.6과 8ㄷ(● 8ㄷ))

●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나이다.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1.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

2.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3. 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를 굽어보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알아보시나이다.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나이다.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ㄹ 제2독서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1,33-36)

33 오!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정녕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34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35 아니면 누가 그분께
무엇을 드린 적이 있어 그분의 보답을 받을 일이 있었습니까?”

36 과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ㄹ 복음 환호송

(마태 16,18)

● 알렐루야.

○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ㄹ 복 음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13-20)

그때에 13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14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15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
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16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7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18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19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

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20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경>

ㄹ 영성체송 (시편 104(103),13-15)

주님, 땅이 당신 내신 열매로 가득하오니, 당신은 땅에서 난 양식을 먹이시고, 술로 사람 마음을 흥겹게 하시나이다.

전례

	미사해설	제1독서	제2독서	신자기도
8/21 8시	김 철중	김 민환	김 정옥	김 미수
11시	이 회양	김 덕현	김 정옥	박 은영
8/28 8시	김 철	윤 광석	윤 기애	정 태영
11시	민 경구	송 호진	송 교식	이 영자

복 사 : 이 재영 & 조 중훈 엄 수연 & 김 크리스티나
 봉헌자 : 주봉길&신홍원 가족 다음주 : 로철진&민중기 가족
 헌금봉사 : 평화의 모후 Pr 다음주 : 바다의 별 Pr
 운전봉사 : 한 광희 다음주 : 민 경구

주간미사 신청하신 분들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분(감사미사) : 김요셉[만석]가족봉헌
 윤토마스[용태]](감사미사) : 성가대 봉헌
 윤마리아[징자](가정미사) : 김리카드로[광수], 서부웨체스터 구역봉헌
 이엘리자벳 가족봉헌
 이마가렛[명숙](가정미사) : 김리카드로[광수], 서부웨체스터 구역봉헌
 이혜원(생미사) : 가족봉헌
 최토마스&아가다(생미사) : 권히야친다 봉헌
 송세실리아[화준](생미사) : 김사무엘[여철] 가족봉헌
 김로사[건순](생미사) : 이안젤라[효순] 봉헌
 자녀들을 위한(생미사) : 박다니엘[경룡], 박아네스 봉헌
 임유리안나[창희](연미사) : 문아네스[옥희] 봉헌
 박누갈다[경애](연미사) : 박아네스, 박다니엘 봉헌
 김마리아[명수](연미사) : 손세실리아, 손아브라함[달구] 봉헌

김요셉[태기](연미사) : 김지은, 김지현, 이바오로[재웅] 가족봉헌
 윤멜리디나(연미사) : 윤안토니오[광석], 양헬렌[부용]

자비의 모후 Pr, 김리디아[현정]봉헌
 연령회에서 봉헌 : 이주호, 황학석, 안안나, 이근배, 정복동,
 정영, 박요한[제일], 김루시아[정자]
 가장 불쌍한 연옥영혼

성가

입당 : 주님을 찬미하라 (성가 15)
 봉헌 : 나의 생명 드리니 (성가 210)
 성체 : 신비로운 몸과 피 (성가 181)
 파견 : 찬양하라 주님의 이름을 (성가 437)



교회 소식

(1) 예비자 교리반 시작

예비자 교리반 교육이 매주주일 오전9시30분에 있습니다.
 주변에 가족이나 이웃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이번기회에 인도하도록 합시다.

(2) M.E. (행복한 주말부부)

제66차 부부주말 피정이 9월3일(토)-5일(월)에 Wyndham Garden
 Hotel, Newark에서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대표부부
 장 윤화(알폰소) 914-523-9887 님이나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꾸르실료 소식

남성 제33차 꾸르실료 피정이 10월20일(목)-23일(주일) 뉴튼 분도
 수도원 에서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간사 정우충(제임스)
 (917) 325-0779 형제님이나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성령세미나 소식

미동북부 성령세미나가 10월27일(목)-30일(주일) 까지 마리안 슈라인
 에서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회장 최일환(니콜라오)
 (347) 573-1417 형제님이나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5) “바보 추기경” 연극소식

9월17일(토) 오후8시 18일(주일) 오후3시, 오후8시에 뉴저지 페리시안
 칼리지에서 있습니다. 입장권은 특석\$60 일반석\$30입니다.
 문의전화는 (846) 947-1504 / (201) 669-9898 로 하시기 바랍니다.

(6) 교구청 기금(Stewardship Appeal)

교구청기금을 아직 미납 하신 분은(교무금 1달치) 회계연도 8월말 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7) 본당 골프대회

청소년 기금마련을 위한 본당 골프대회가 오늘(주일) 12시부터 스프레인 레이크 골프장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가를 바라며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8) 부주임신부님 휴가

부주임신부님께서 다음주 29(월)-9월9일(금) 까지 휴가를 가십니다.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9) 본당 모임

- 꾸리아 월례회의가 다음주(주일) 11시미사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 연례회 모임이 다음주(주일) 11시 미사 후(12시30분) 센타 202호실에서 있습니다.

※ 2012년도 연중 사목계획표 가 본당 뒤편에 비취되어 있습니다. 한부씩 가져가셔서 본당행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아름 상품권을 구입(5%는 빈센트회에 돌아옴) 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움시다. 상품권은 추바오로[성태], 형제님 또는 김카타리나[신자] 자매님께 구입하십시오.

* 이번달(8월) 커피및 친교실 청소는 동부 브롱스 구역입니다.
다음달(9월)은 중부 브롱스 구역입니다.
담당구역은 의자와 테이블을 접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 \$ 2,919.00 (성모승천 대축일 \$ 613 포함)

교육헌금 : \$ 3,821.00

교 무 금 : \$ 1500.00

진경란(8) 한경수(8) 황의강(완납) 이재웅(1-7)

한성천(8) 로병건(9) 방은협(8-9) 김을수(3-8)

김총자(7-8) 박진혁(7) 민중기(완납) 최숙자(8)

김원식(7) 김 철(1-5)

Stewardship Appeal : \$320.00 누계 : \$ 8,575.00

한경수 양부용 서진협 김 철 이재웅 김을수

조손가정

나의 한 친구는 손자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부터 이제까지 키우고 있는데 어느덧 다섯살이다. 아들이 사귀던 여자가 아기를 낳고는 그 아들과 헤어지면서 아기는 그만 할머니의 아기가 되어버렸다. 그 친구는 자기의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는 한가해져서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만 느닷없이 아들의 아기를 떠맡으면서 다시 예전 엄마의 삶을 살고 있다. 60이 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아기 손자를 키우면서 항상 무슨 비상에 걸린 사람들처럼 긴장된 삶을 살고있는 모습이 안쓰럽게 보이지만, 두 노인이 손자 사랑을 하는 것으로 보아 기쁘게 아기를 키우고 있는 것 같다. 주위에서 보면 손자나 손녀들을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많이 보는데 주로 부모가 직장에 나가 있는 동안에만 보지 그 친구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한 신문을 보니 미국에서 부모 없이 생활하는 미성년자가 전국적으로 310만 명인데 그중 59%가 조부모와 함께 산다고 했다. 조부모와 함께 살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양하다. 부모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이들의 부모가 자신의 아이들을 키울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예전에 내가 병원에서 근무할 때 젊은이들이 마약이나 그 외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의 아이를 무슨 보육원 같은 곳으로 보내는데 그럴 때 조부모가 자기네들이 아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다. 한국에서도 조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아주 많다고 한다. 주로 부모들의 가정파탄, 또는 돈을 벌기 위해 멀리 떠나있는 경우 등등으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 세대를 뛰어넘어서 조부모와 손자, 손녀들이 사는 가정을 조손가정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그랜드가족(grandfamily)이라고 부르는 신조어가 생겨났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조손가정이 경제적으로 몹시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아는 한 모임에서는 일년에 두 번씩 돈을 모아서 한국의 한 시골마을에 있는 몇 조손가정을 돕기도 한다. 시골에 조손가정이 많은 이유는 젊은 부모들이 헤어졌거나, 아니면 도시로 돈벌이를 가고 집에는 노인들과 어린이들만 남게되기 때문이라고. 손자, 손녀는 오면 반갑고, 가면 더 좋고 하는 말이 있듯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손자, 손녀는 예쁘고, 안보면 보고싶지만, 함께 장시간을 보내면 노인들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어린이들을 돌본다는 것이 그만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이 든다. 조부모들이 어린 손자, 손녀들을 돌보면서 없던 힘도 다시 생겨나고, 삶에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한편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 또는 신체적 과로 등은 이루 말할수가 없다. 조손가정이 늘어나는것도 사회변화의 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손가정의 연노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그 밑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우 몽은